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아무것도 없는 책>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교사 및 양육자를 위한 설명서 수록



아무것도 없는 책

레미 쿠르종 글·그림 | 이성엽 옮김 | 64쪽 | 14,000원 | ISBN 978-89-255-8858-2 (77860) | 초등 전 학년 대상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1 봄 1. 알쏭달쏭 나

3-2 국어 3.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4-1 국어 5. 내가 만든 이야기

5-1 국어 4. 글쓰기의 과정

5-2 국어 4. 겪은 일을 써요

창체 자율 활동(진로 교육)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네가 쓰고 싶은 것을 써.” 이런 말만큼 기쁘고 반가운 말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만약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면? **때때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어렵고 막막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어른의 마음과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 걸어 올리는 것이 아직은 힘든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림책 《아무것도 없는 책》은 이런 고민의 해결 방향을 알려 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알리시아와 그녀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말이죠. 알리시아는 할아버지가 선물해 준 ‘아무것도 없는 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기록하고, 채워 갑니다. 책을 읽는 아이들 역시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고요.

특히 이 작품은 이야기를 표현해 가는 과정을 잘 그려 내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쓰고 싶다 해서 곧바로, 쉬이 써지지 않는다는 것. 어느 때는 한참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한다는 것.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쓸 수도 있다는 것. 이야기를 쓰다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 줌으로써 아이들이 지니고 있을 ‘자기 이야기 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줍니다. 백마디 말보다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주인공을 따라가 보는 것이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지요.

더불어 이 작품은 어른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줍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책을 선물해 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도운 알리시아의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생각할 기회와 재료를 제공하고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또한 좋은 어른의 역할이고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깊이 탐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길 때 그림책 《아무것도 없는 책》과 함께 빈 노트, 빈 책을 한 권 선물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도록 응원해 주세요. 거창한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여행의 목적지는 책상 위일 수도 있고, 동네의 산책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 등굣길로, 학원 가는 버스로, 단골 편의점으로 떠나는 여행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여행이 꼭 책이라는 결과물로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두고 생각하다 보면 아이들은 스스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최유라 (청주 청원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과 책을 만드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과 오랫동안 책으로 수업하고 책을 만든 과정과 결과를 SNS와 강의를 통해 선생님과 양육자에 공유하며 교실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쌤스쿨>, 그림책 연구회 <다독다독>
- 충북, 충남교육청 초등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포함 전국 교육청 ‘그림책 활용 교육’ 연수 강사



미션 1 : 아무것도 없는 책?



책을 읽기 전에 표지의 제목과 그림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① 책의 제목을 살펴봅시다.

이 책의 제목은 《아무것도 없는 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책’은 무슨 의미일까요?

② 표지 속 그림을 살펴봅시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빈 페이지에 어떤 글,
어떤 그림을 채워 넣고 싶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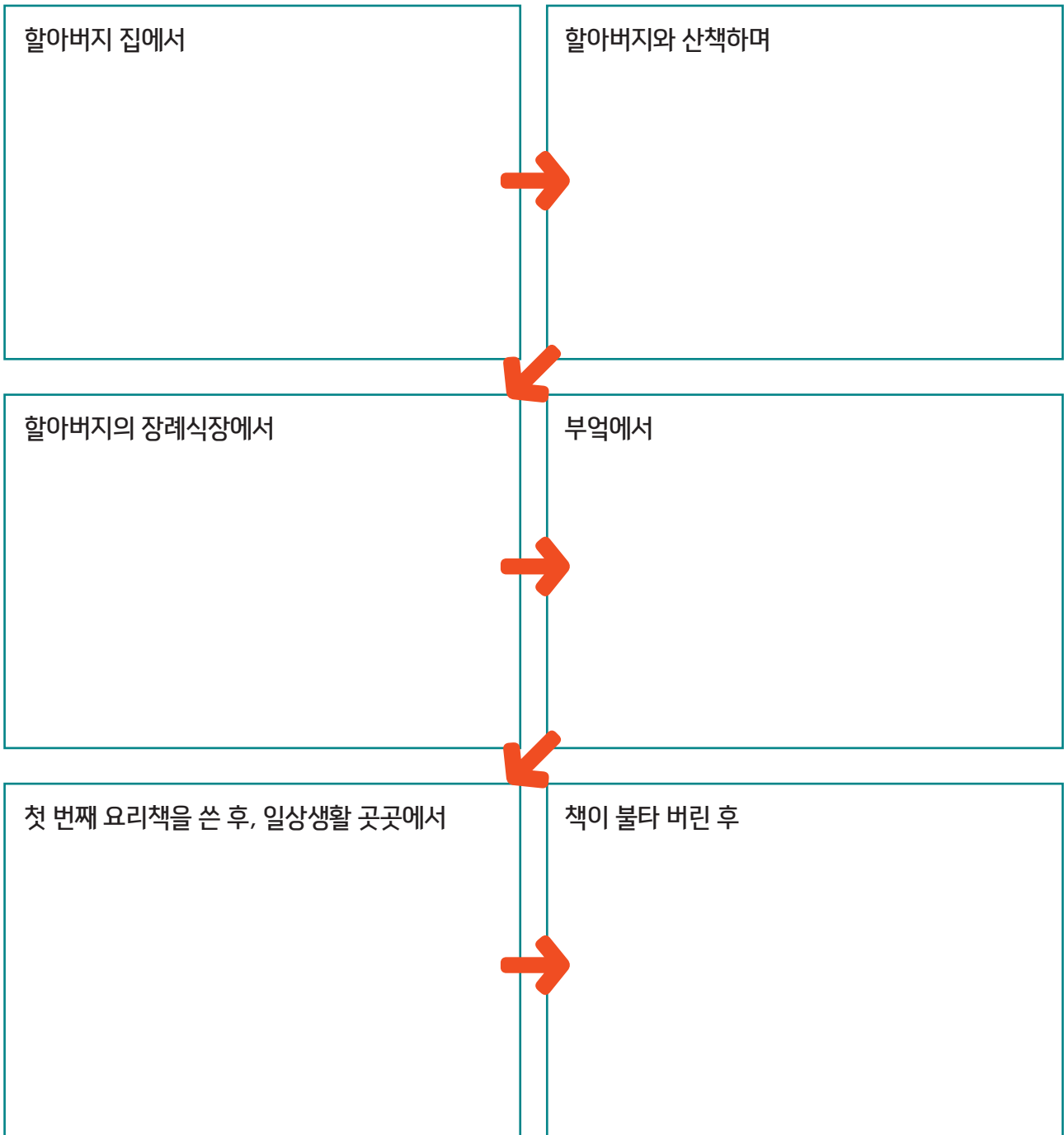
표지의 제목과 그림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미션을 완료했다면 이제 책을 펼쳐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한 답이 맞는지 확인하며 읽어 보세요.

미션 2 : 알리시아 따라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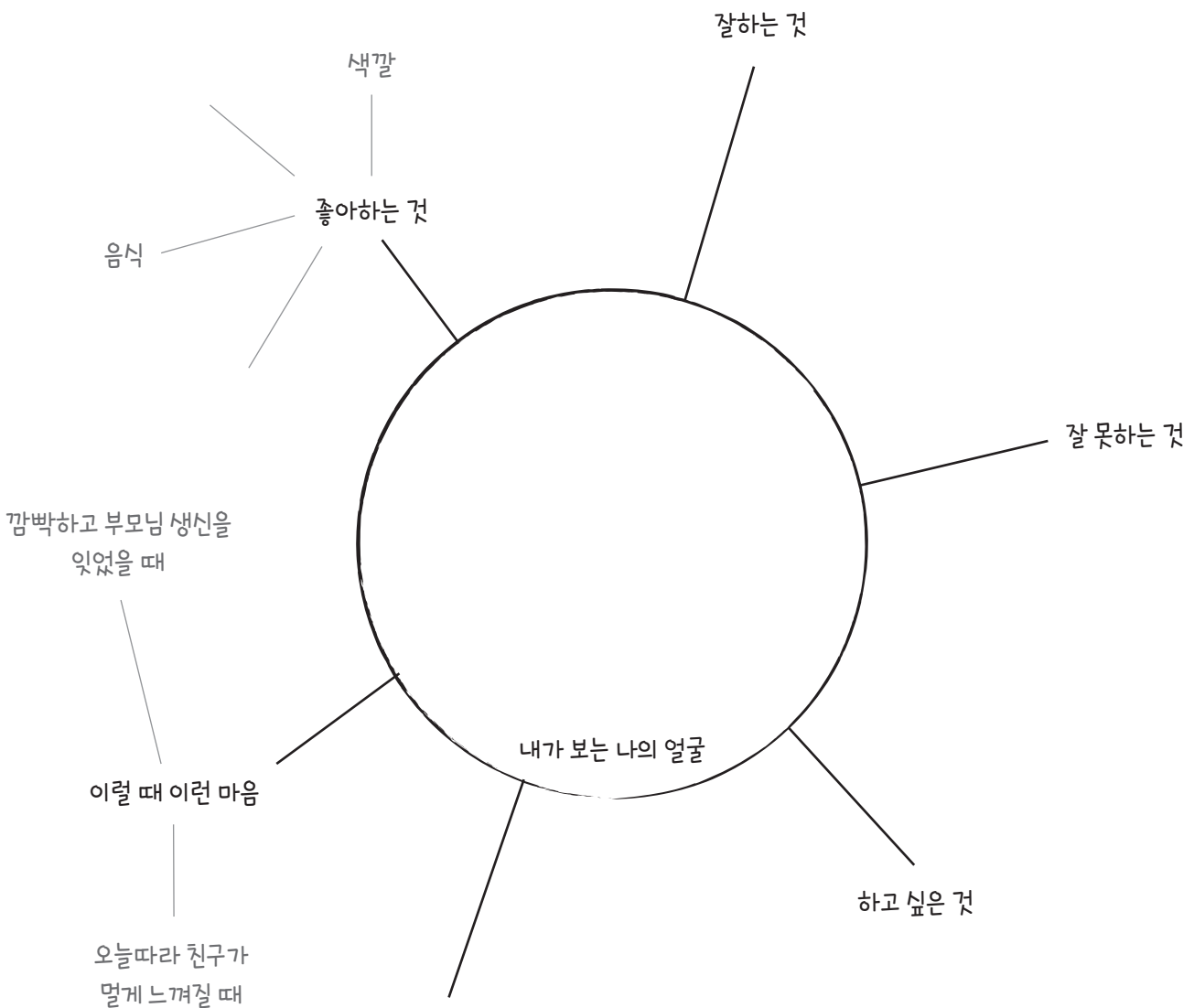
우리 함께 《아무것도 없는 책》의 주인공 알리시아를 따라가 볼까요?
알리시아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요약하며 정리해 봅시다. 글로 써도 좋고, 책 속의 그림을 따라 그려도 좋아요.



미션 3 : 나를 알아 가다



우리도 알리시아처럼 '아무것도 없는 책'을 채워 나가 봅시다.
책을 만들려면 어떤 것을 쓰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야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며 마인드맵을 만들어 봅시다.



미션 4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책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여행을 떠나 봅시다. 목적지가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알리시아는 부엌에서 첫 번째 요리책을 만들었잖아요? 집 안 곳곳을 쏘다니며, 집 앞을 산책하며, 학교에서, 자주 가는 편의점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책에 어떤 내용을 채울지만 생각한다면요! 여행에서 만난 이야기들을 아래에 정리해 봅시다.

예시) 오늘 여행한 곳은 학교 앞 편의점이다. 나는 편의점에 가면 살 것을 바로 고르기보다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난 뒤에 사야 할 것을 찾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도 그런 것 같다. 이런 습관은 이것저것 구경하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나의 성격 때문인 것 같다.

미션 5 : 제목과 목차 지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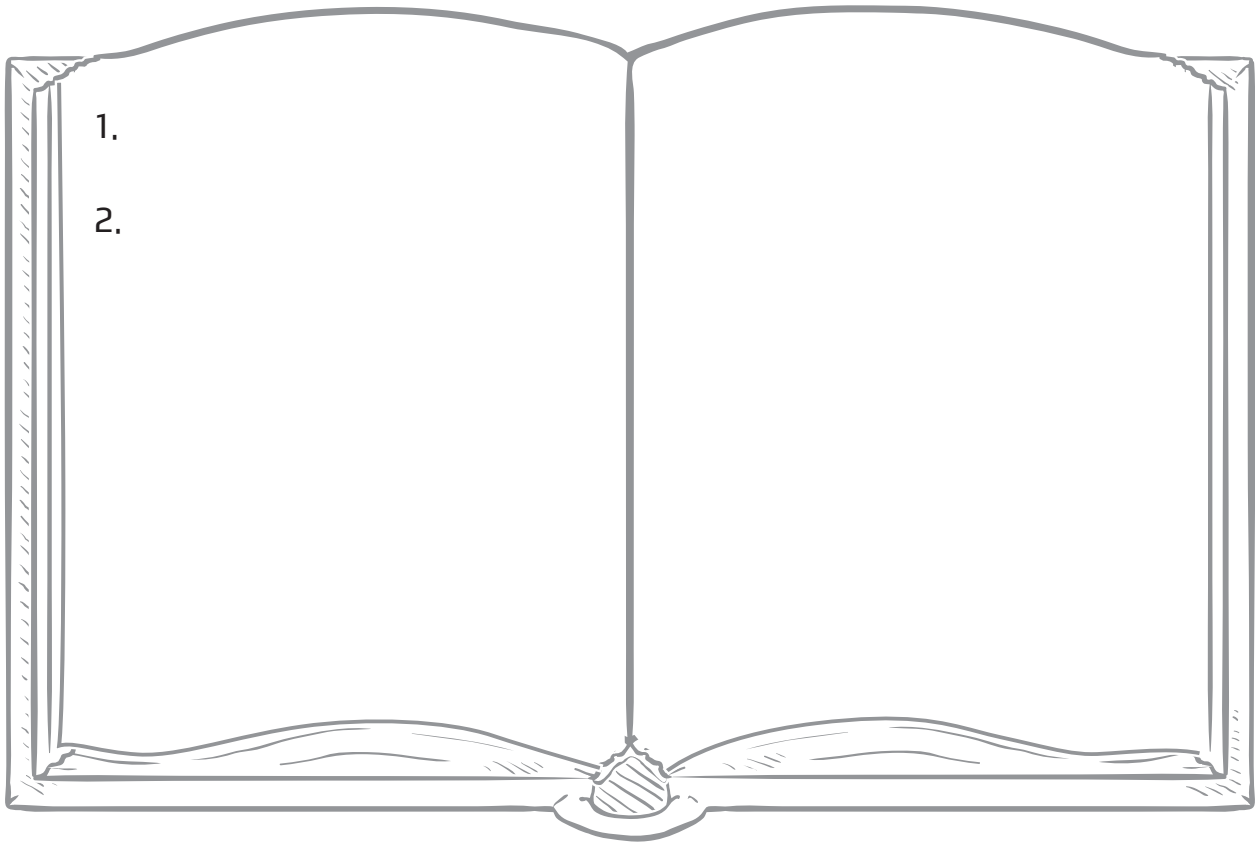


제목과 목차는 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보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책에는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은지, 목차를 어떻게 짜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① 나의 책의 제목을 지어 봅시다.



② 목차를 만들어 봅시다.



앞서 진행한 ‘미션 3 : 나를 알아 가다’와 ‘미션 4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참고하면 좋아요.
목차를 반드시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채워도 좋습니다.

함께 미션 : 누구의 책일까?



알리시아가 만든 책은 <아무것도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에게 책을 선물받은 후의 여행이 담겨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을 만들었을까요?

선택 활동 ① 가족이나 친구의 책을 보고 누구의 책인지 맞춰 봅시다.

- 책이 완성되면 이름을 가리고 서로의 책을 읽어 봅시다.
- 책을 다 읽고 난 뒤 누가 쓴 책인지 알아맞혀 봅시다.
- 책이 미처 완성되지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제목이나 목차, 간단한 내용 등을 보고 누가 만든 책인지 맞춰 보세요.
-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도 함께 나눠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선택 활동 ② 가족이나 친구를 관찰하고 책 내용을 추천해 봅시다.

- 때로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더 잘 알 때도 있고, 내가 보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서로에 대해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요.
-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질문해 봅시다.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할 지도 몰라요.
-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책 내용을 추천해 줍시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다양한 내용을 추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교육자와 양육자를 위한 미션 활동 안내서

6가지 미션 활동지를 준비했습니다. 단계별 미션을 해결하는 동안 아이들은 저절로 책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미션 활동에 앞서

아이에게 책을 소개해 주세요.

아이가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은 모든 어른의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해.'라는 말은 때로 막막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이는 자신에 대해 아직 속속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책》은 주인공 알리시아가 책 한 권을 자신의 이야기로 채워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에 대해 좀 더 살펴볼길 원한다면 이 책과 함께 빈 노트 한 권을 선물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에 게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미션 활동에 앞서

이럴 때 읽어 보세요.

-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할 때
- 아이가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그것을 표현하길 바랄 때
- 책을 만드는 과정, 나를 찾아가는 과정 등에 관해 보여 주고 싶을 때
- 아이와 함께 책 만들기를 해 보고자 할 때

책을 읽기 전에

미션 1 : 아무것도 없는 책?

책을 읽기 전 책의 표지를 살펴보고 작품 내용을 각자의 방식으로 예상해 보는 활동입니다. 표지의 제목과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먼저 책 제목의 의미를 상상해 보고, 아무것도 없는 책 속에 어떤 내용을 넣고 싶은지 생각을 말하거나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전반적인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미션 2 : 알리시아 따라가 보기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시간과 장소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정리해 봅니다. 아이가 그림을 좋아하면 책 속 그림을 보고 따라 그려도 좋고, 간단히 글로 정리해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줄거리를 요약 및 정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미션 3 : 나를 알아 가다

알리시아처럼 아이들이 자신만의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첫 번째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해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인드맵을 사용해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가지를 더 그려 쓰고 싶은 것은 모두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혹 아이가 답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생각해 주거나 나중에 떠올랐을 때 써도 괜찮다고 응원해 주세요.

책을 읽고 나서

미션 4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나에 대해 더 알기 위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활동입니다.

주인공 알리시아가 부엌에서 첫 번째 요리책을 쓰기 시작했듯 아이들에게도 집 안 곳곳, 동네 곳곳을 다니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이 쓰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상 속으로의 여행을 통해 자신의 성향과 취향 등 떠오른 생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미션 5 : 제목과 목차 지어 보기

책 제목을 짓고 목차를 짜 보는 활동입니다.

책 제목과 목차는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얼굴'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자신의 책 제목과 목차를 써 보도록 합니다. 이때 앞서 진행한 미션 3, 4의 활동지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자신이 찾고 정리한 이야기들 중에서 쓰고 싶은 것을 고르고,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정하고, 고른 이야기의 순서를 잘 배열해서 목차로 나타내면 된다고 안내해 줍니다.

책을 읽고 나서

함께 미션 : 누구의 책일까?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함께 미션을 진행해 봅시다.

첫 번째, 각자 만든 책을 나누며 누구의 책일지 맞혀 봅시다. 꼭 완성된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목이나 목차만 보고 누구의 책인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만들 책의 내용을 추천해 봅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질문해 보게 해도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좀 더 알게 될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아이가 자신에 대한 글을 쓰는 것에 흥미를 보인다면
이 책도 함께 읽어 보세요!



《리시의 다이어리》 엘런 델랑어 글 | 일라리아 차넬라토 그림 | 김영진 옮김

책을 읽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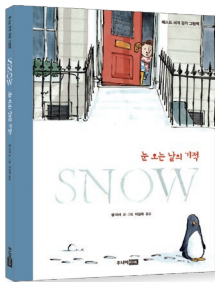
아이에게 자기 긍정성을 심어 주고 싶다면
이 책도 함께 읽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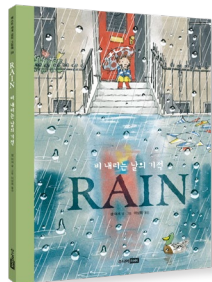
《나도 사자야!》 에드 비어 글·그림 | 서남희 옮김

책을 읽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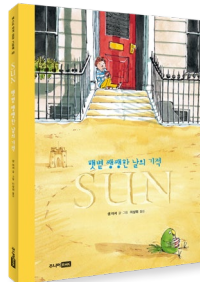
할아버지와 손자의 상상과 모험을 그린 책을 보여 주고 싶다면 이 시리즈도 함께 읽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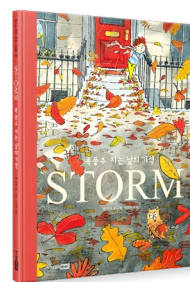
《SNOW 눈 오는 날의 기적》



《RAIN 비 내리는 날의 기적》



《SUN 햇볕 쨍쨍한 날의 기적》



《STORM 폭풍우 치는 날의 기적》



《WILD 고양이와 함께한 날의 기적》

샘 어셔 글·그림 | 이상희 옮김